

우크라이나 재건 종합 동향 보고서 (‘23.3.13 기준)

2026.3.13. KIND 폴란드 사무소

◇ 본 보고서는 2026년 3월 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변화와 평화 협상 추이,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는 12억불 규모의 재건 펀드 등 경제적 동향과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현황을 분석함

1 주요 동향 분석

가. 정치·군사적 국면(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회)

□ 평화 협상 추진 및 안보 보장

- 협상현황 :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달 내 종전' 압박 하에 '현 상태 동결' 위주의 협상이 진행 중이나, 독일 등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보 보장책(평화유지군 파병 검토)을 준비
- 러시아의 지연작전 : 중동(이란) 위기를 빌미로 회담 시기를 늦추며 협상 우위 확보 시도
- 미국의 중재 : 부다노프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 보장안을 수용했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 지속
- 2026년 주요 평화 협상안 및 쟁점
 - 현재 협상의 중심은 미국이 주도하는 '28개 조항 평화안'과 우크라이나가 고수해온 '승리 계획' 사이의 절충안을 찾는 것

[2026년 주요 평화 협상안 및 쟁점]

구분	주요 내용 및 조건	비고
미국 (트럼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토 동결: 현재 전선(약 20% 점유)을 기준으로 휴전▪ NATO 가입 유예: 최소 20년 이상 가입 금지 명시▪ 비무장 지대: 유럽군 중심의 완충 지대 설치	러시아의 실질적 점령 인정 가능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 반발 큼
우크라이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권 보장: 영토 할양은 불가하나 '외교적 회복' 가능성 열어둠▪ 안보 보장: NATO 가입 대신 미국·유럽의 강력한 군사 지원 보장▪ 강제 징집병 귀환: 러시아로 압송된 아동 및 포로 전원 복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90% 합의" 언급하며 일부 양보 시사

구분	주요 내용 및 조건	비고
러시아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합병(4개주):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완전 인정 요구 ▪ 탈군사화: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 제한(상한선 설정) ▪ 제재해제: 서방의 경제 제재 즉각 중단 및 G8 복귀 	최근 "영토 양보 없이는 협상 중단"이라며 다시 압박 수위 높임
EU (유럽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가입 가속화: NATO 대신 경제적·정치적 통합 우선 지원 ▪ 평화 유지군: 프랑스, 영국 중심의 다국적군 파병 검토 ▪ 재건 비용: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 	미국의 급격한 종전 압박에 대비해 독자적 안보 보장책 마련 중

- 현재 협상의 3대 핵심 난제

- ① 영토 문제(Land for Peace): 러시아는 점령지 전체를 영토로 인정받길 원하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주권 포기"로 간주. 최근에는 '영토 소유권은 유지하되 실질적 통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분쟁 중단 모델이 검토되고 있음
- ② 안보 보장(Security Guarantees): 우크라이나는 휴전 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자국군 파병에 선을 긋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③ 군대 규모 제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을 60만명 이하로 제한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어권 침해라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음

- 향후 일정

- 2026년 3월 초 아부다비 또는 제네바에서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4차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나
- 이란전쟁과 관련 아부다비는 묘연한 상황
- 2026년 여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종전 목표 시한'으로, 이 시기 전후로 결정적인 합의나 혹은 협상 결렬에 따른 대규모 공세가 예상됨

- EU 주요국 및 기구별 휴전 협상 입장(2026년 3월 기준)

- ① 미국 vs 유럽의 온도 차 : 미국은 '24시간 내 종전' 기조 아래 빠른 타협을 종용하는 반면, EU 주도국(프랑스, 폴란드 등)은 우크라이나가 굴욕적인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도록 군사적 자립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음

- ② EU 가입 시기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7년 가입을 목표로 배수진을 쳤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전쟁 중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기술적 준비' 단계만 지원하고 있음
- ③ 안보 보장 체제 : 휴전 후 러시아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럽 국가들이 직접 평화 유지군을 보낼 것인지가 현재 이슈임

[EU 주요국 및 기구별 휴전 협상 입장]

구분	주요 내용 및 조건	비고
EU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헌장 기반 영토 보전 지지 	'트럼프 방지(Trump-proofing)' 전략: 미국 지원 축소에 대비해 900억 유로 규모의 독자적 금융 지원 승인
프랑스 폴란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의 연합' 결성, 유럽군 파병 검토 	안보 보장 :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억제력 제공 및 다국적군 배치 논의 주도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의 휴전 강력 반대 	강경 대응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또는 이에 준하는 강력한 서방의 안보 보장 없이는 휴전 불가 입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지속하되 EU 가입에는 신중론 	현실적 접근: 휴전 협상 자체에는 열려 있으나, 독일의 국방력 강화와 병행하여 유럽 내 방위 부담금 증액 추진
헝가리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휴전과 지원 중단 주장. EU 가입 및 NATO 가입 거부권 행사 중 	친러/중립 성향: 미국의 조기 종전 압박에 동조하며 EU 내 단일 대외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

□ NATO의 움직임

- NATO 평화유지군 준비 : 영국과 프랑스 공수부대가 휴전 합의 시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평화유지군 임무를 위한 최종 연습을 마침

□ 전황의 반전

- 영토 상실 :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영토 상실 면적이 획득 면적을 상파(January-February 460km² 탈환)했다라는 통계
- 경제 붕괴 조짐 : 러시아 내부에서도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했다는 인정. 유가 상승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으나, 페르시만 전쟁 여파로 급격히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러시아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상황임

- 미국의 전략적 제재 완화 : 글로벌 시장의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 시작함('26.3.9)

- 인도측 제재 유예 : 해상 채류 중인 러시아 유조선의 석유 구입에 대해 인도 정유사에 30일간의 제재 유예를 부여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정유사들은 이미 1,000만 배럴 이상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했으며, 제재 유예 공식 발표 전부터 유조선들이 인도 항구로 기수를 돌리는 등 시장 선점 움직임이 포착

- 미국의 추가 완화 검토 :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며, 이는 과거 러시아 석유에 적용되던 대규모 할인(Discount)이 프리미엄(Premium)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중동 변수 : 이란-이스라엘 분쟁을 빌미로 러시아는 협상 지연을 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역으로 자국의 드론 요격 기술을 중동에 제공하고 방공 시스템(Patriot 등)을 확보하는 외교적 실리를 취하고자 함

□ 공급망 타격 :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하르키우 공장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16백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보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음

나. 경제 및 에너지 안보

□ 에너지 자립 가속화 :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공급 차단 위협)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미국산 LNG 수입(Klaipeda 터미널) 개시. 지역별 '에너지 회복력 계획'을 통해 전력망 분산 및 자구책 마련

□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 : 푸틴은 이란 전쟁 상황을 이용해 EU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유럽행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에너지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와의 갈등 : 우크라이나는 비상 전력 공급을 중단한 슬로바키아를 향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 거버넌스 개혁 : 국영 에너지 기업(Naftogaz 등)의 이사회를 글로벌 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기업 클린업' 단행. 이는 서방 자본 유입을 위

한 신뢰 구축의 핵심 지표임

- 새로운 이사회 출범 : 폴란드,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출신의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 4명이 독립 이사로 선임. 부패를 척결하고 국영기업을 현대화하여 서방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
- 재정 상황 : IMF로부터 81억 달러 규모의 Lifeline(EFF)을 확보했으나, 여전히 거대한 자금 간극(Funding Gap) 존재. 국채 발행 및 임대료 세율 인하(23%→7%)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시도 중

다. 정책 기조 및 재정적 리스크

- 재건 펀드 운영('26.2.2 / 12.22) : 미-우 재건 투자 기금(URIF)이 본격 가동되어 초기 22건의 프로젝트 선정. 지분 투자 및 Quasi-equity 방식으로 지원
- 대규모 경제 협약('26.1): 다보스 포럼 계기, 향후 10년간 8,000억불 규모의 'Prosperity(번영) 협정' 추진(미-우 공동)
- EU 지원금 손실 우려('26.2.3): Ukraine Facility 이행 지표 미달성으로 인해 약 4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 중단 가능성 경고(RRR4U)

2 재건사업 및 산업별 동향

가. 재건비용 및 투자 규모

- 전체 수요 : RDNA5 보고서 기준, 향후 10년간 재건 비용은 5,877억불 (약 800조원, 2025년 우크라이나 GDP의 약 3배 규모로 평가됨)로 전년 대비 12% 상승
- 자금조달 : 올해에만 150억불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며, 현재 이 중 38%만 확보, 나머지 95억불의 funding gap이 존재
- 국가별 지원 : 일본(62억엔), 노르웨이(난센 프로그램, 90억불) 등 대규모 지원 약속,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보험중개사 AON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현지보험사인 크냐자(Knyazha VIG)에 총 25백만불 재보험

한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불 규모의 전쟁 위험 보험 증권을 확대 지원('26.2.11)

나. 산업별 동향

□ 방산 및 첨단기술

- 방산 성장세 : FPV 드론 제조사 매출 80% 이상 급증. 2026년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 총 매출은 40억 유로에 달할 전망
- 글로벌 협력 :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제조사와 8억 유로 규모의 'Build with Ukraine' 파트너십 체결. 서방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이 결합된 무기 체계 역수출 현상 가속화
 - 영국 영내 드론 생산('26.2.25) : Ukrspecsystems가 영국에 드론 공장을 가동하여 요격 드론 'OCTOPUS' 양산 체계 구축
 - 독일 Stark Defence의 우크라이나 R&D 센터 개소('26.2.17) : Stark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2,000m² 규모 무인 전투체계 연구개발센터 개소

□ 전략 자원 및 산업 재편

- 광구권 재입찰('26.2.4) : 티타늄, 리튬 등 39개 미개발 광구에 대해 올리가르히의 광구권을 회수하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 재공모 추진
- 전략 기업 민영화('26.1.9): 원전 수처리 소재 기업(Smoly) 및 최대 화학/비료 기업(Sumykhimprom)의 민영화 경매 실시

□ 에너지 인프라 : 분산화 및 보호 전략

- 분산형 열병합 및 가스 발전 확대
 - 정책 발표 : 2026년 내 최소 1GW 이상의 추가 설비 가동 목표(콜레바 장관, '26.2.2).
 - 운영 현황 : 2025년 총 762MW 신규 가동 완료. 현재 3GW 규모 프로젝트 개발 중('26.1.5 / 2.11)
 - 민간 투자 : Power One(Dragon Capital+Negen 합작사)이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 20백만 유로 규모의 첫 분산형 가스발전소 36.8MW+BESS 31.5MW 조기 가동 개시('26.2.18)

○ 재생에너지 가속화

- 태양광 : 2025년 1.5GW 신규 설치(전년 대비 2배 성장). Kyivstar(12.17)는 12.9MW 발전소를 인수하며 통신망 에너지 자립 본격화('26.2.19)
- 풍력 : 2025년 324MW 신규 구축. 트란스카르파티아 156MW 대형 단지 건설 최종 승인(12.22 / '26.2.16)
- 바이오메탄 : 2025년 사상 최초 EU 수출(1,120만m³) 기록. Pan Kurchak Group이 연 700만m³ 규모 플랜트 건설 추진 발표('26.1.9 / 2.25)

○ 에너지 인프라 보호 및 현대화

- 지하화 : Ukrenergo 핵심 변전소를 지하 병커로 이전하는 장기 전략 추진(2.10)
- 수력 현대화 : EBRD가 Ukrhydroenergo에 75백만 유로 대출(EU 보증) 하여 노후 설비 교체 및 효율 개선 지원('26.1.12)
- 국제 지원 : 네덜란드가 에너지지원기금에 35백만 유로 추가 출연(누적 1억 유로)('26.2.10)
- 태양광 : 2025년 1.5GW 신규 설치(전년 대비 2배 성장). Kyivstar(12.17)는 12.9MW 발전소를 인수하며 통신망 에너지 자립 본격화('26.2.19)
- 에너지 원자력: 에네르고아톰(Energoatom)은 Khmelnytskyi 원전 5·6 호기 건설 프로젝트(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노형)에 5,346억 흐리우냐(약 128억불) 투입 예정
- 긴급 복구 : EU와 유럽투자은행(EIB)은 겨울철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나프토가스(Naftogaz)에 50백만 유로를 추가 대출 지원(누적 9.7억 유로). 나프토가스는 해당 자원을 재생에너지 및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로 약속
- 현대화 : 지자체 난방 및 열병합 발전소 에너지 현대화 사업에 2,924억 흐리우냐 배정

○ 교통·물류 및 항만 인프라

- 항만 PPP 본격화('26.1.27) : Chornomorsk 항만 최대 40년 운영권을 위탁하는 Concession 방식 입찰 공식 개시. EBRD와 IFC가 국제 자문으로 참여

- 범유럽 물류망 및 도로 현대화
 - 도로 및 철도 복구 수요는 전체 재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960억불)을 차지
 - 물류허브 : 루마니아와 NATO는 폴란드 Rzeszow에 이은 제2의 Coordination 센터를 루마니아에 개설('26.1월). 이는 군사 및 구호 물자 수송 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물류 거점이 될 전망

- 산업단지 및 민간 투자

- 산업단지 확충 : 2025년 말 기준 111개 산업단지 운영 중. 2026년부터 매년 최대 30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등록하고, 15~25개 단지를 실제 가동하는 목표 수립
- 지역별 분포 : 리비우(20개), 키이우(15개), 자카르파냐(12개) 지역이 주도. 현재 37개 시설(공장 22개 완공, 15개 건설 중)이 식품 가공, 목재, 기계 공학 분야에서 가동 중
- Chortkiv 서부 산업단지 상하수도망 구축에 스위스/스웨덴 기금 62만 달러 유치('26.2.19)

-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 투자 활성화 : Angel One 등 국방 및 민간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 확대. 정부는 'Brave1'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무인 기술 등 방산 혁신 기업 지원에 49억 흐리우나 편성

○ 지역 기반 재건 프로그램('26.1.27)

- 유럽투자은행(EIB) 지원으로 미콜라이우·오데사 주 22개 프로젝트 (상하수도, 보건 시설 등) 자금 지원 승인

□ URIF(미-우 재건 투자 기금) 및 5대 핵심 투자 분야

- 명칭 : U.S.-Ukraine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URIF)
- 성격 : 미국 DFC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합작 투자 기구(민간 투자 촉진)
- 자본금 : 초기 자본 \$150백만불(미국 75백만불, 우크라이나 75백만불)
- 운영 : 2026년 초 가동, 전용 포털(urifinvest.com)을 통해 프로젝트 접수 및 심사
- 5대 핵심 투자 분야(Priority Areas)

-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자립 가능성과 서방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 배정되며, 우크라이나와 DFC는 12억불(약 1.6조 원) 규모의 8개 핵심 프로젝트 숏리스트를 확정함

중점분야	비중	주요 내용 및 특징
에너지/안보	62%	▪ 신규 발전소 건설, 송전망 복구, 분산형 전력망 구축, 신재생 에너지
물류/인프라	16%	▪ EU 표준 철도 궤도 확장 및 도로 복구, 물류 터미널 건설
핵심 광물	12%	▪ 리튬, 티타늄 등 배터리 원자재 개발(EU 공급망 편입)
IT/통신	8%	▪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시스템 복구
신흥기술		▪ 방산 테크(드론, AI) 및 고부가가치 제조 기술

3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동향

가. 2025 폴란드의 3대 재건 전략('26년도 유지)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2025년 하반기, 폴란드의 역할을 세 가지 축으로 정의함
 - 교통(Transport) : 우크라이나행 물자의 90%가 통과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국경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장기 물류 허브화 추진
 - 무역(Trade) : EU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의 약 30% 점유. 우크라이나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관문(Gateway) 역할 수행
 - 투자(Investment) : 자국 기업의 직접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및 우크라이나 경제 시스템의 EU 표준화(Modernization) 주도

나. 주요 정책 및 방침 : '전략적 허브'로의 전환

-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준비를 돕는 동시에, 자국 기업이 재건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법적·금융적 토대를 구축
 - 2025 개발 협력 계획(Development Cooperation Plan 2025)
 - 폴란드 외무부는 2025년 원조의 최우선 순위를 우크라이나에 두고, 단순 구호를 넘어 우크라이나 공공 행정의 EU 표준화와 제도 개혁 지원에 집중
 - 공공 행정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기준(Acquis Communautaire)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공 행정 시스템의 개혁, 부패 방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을 지원함

- 지속 가능한 재건: 재건 과정에서 단순 복구가 아닌, EU의 그린 딜 표준에 맞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목표로 함

- 5대 전략 우선순위 분야(Thematic Pillars)

- '25년 계획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5대 테마에 집중

	분야	주요내용
1	기후 및 자연보호	산림 보호, 생물 다양성 회복, 기후 변화 적응 전략 수립 지원
2	깨끗한 물과 위생	식수 공급망 복구 및 폐수 처리 시설의 현대화
3	재생 에너지	우크라이나 에너지 독립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전원 구축
4	기회 균등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보건 서비스
5	제도적 역량	민주적 제도 강화 및 시민 사회 활성화 지원

○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금융 지원 제도

- FIWR(Financial Instru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법적근거 : 2025년 5월 발효된 '개발협력법' 개정안에 따라 BGK 내부에 설치한 개발협력 전용 금융계정(해당 계정에서 Ukraine Facility와 정부예산을 통합 관리)
- 지원범위 : 인프라 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 등 전략적 분야에 집중
- 운영방식 : 정부 예산과 EU Ukraine Facility 기금을 혼합 또는, 국제 기구의 자금을 혼합(Blending)하여 우크라이나와 기타 우선순위 국가(몰도바, 조지아 등)에 우대 금리 대출, 보조금, 기술 지원을 제공
- 기업 혜택 : 폴란드 민간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FIWR이 담보하거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기업들의 리스크가 발행할 수 있는 투자를 유도함

-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MFiPR)의 파일럿 프로젝트

- 프로그램명 : PLN 250백만 Pilot Program
- 폴란드 국영은행 BGK가 MFiPR의 자금을 받아 2025년 3월 28일 정식 런칭한 우크라이나 전용 저리 대출 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총 250백만 즈워티

- 대출 조건 : 최대 10백만 즈워티, 고정금리 연 2%, 상환 기간 최대 10~12년
 - 주요 파트너 : BOŚ SA(Bank Ochrony Środowiska)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중심 대출 집행, SISP SA(사회경제투자공사) 사회적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 Lublin-Biłgoraj 컨소시엄은 국경 인접 지역 물류 및 수출입 지원
 - 용도 : 우크라이나 대상 수출, 현지 생산 설비 투자, 물류창고 건설, 의료 기기(의수·의족 등) 제조 등
 - 자금집행현황 : 2025년 12월 기준, 약 20개 기업에 66백만 즈워티가 기 집행됨
- EU 우크라이나 대출(EU Ukraine Facility)**
- EU가 조성한 500억 유로 규모의 재건 기금을 폴란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BGK가 집행 기관으로 참여
 - 특징 : BGK는 폴란드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EU 집행위원회의 Pillar Assessment를 통과한 기관으로, EU 자금을 직접 운용할 권한이 있음
 - 대상 : Ukraine Facility 규정에 부합하는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우크라이나, EU, EEA, 몰도바, 조지아 등).
 - 대출한도 :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5%(약 5백만~50백만 유로 수준)
 - 상환조건 : 최대 15년의 장기 대출 구조로 운영
 - 주요 금융 수단 : 정보 보증, 보조금, 유로기반의 저리 직접 대출, 혼합금융(보조금+대출), 지분투자, 기술지원(엔지니어링 자문 및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중점분야 : 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 송배전 인프라, BESS, 연료 생산 및 운송), 제조·가공(건설자재 생산 등 재건 필수 산업 중심의 현대화)
- 우크라이나 재보험(KUKE Reinsurance Scheme)**
- 주요내용 : 폴란드 수출보험공사(KUKE)가 운영하는 15억 유로 규모의 재보험 프로그램임
 - 지원 방식: 민간 보험사가 우크라이나로 물자를 수송하는 기업의 전쟁 리스크를 보장할 때, 국가가 그 리스크의 80%를 재보험으로 떠안아 줌

- 'Team Poland for Ukraine' 통합 브랜드 런칭
 - 발표 시점 : 2025년 7월 7일(로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 직전 공식 발표)
 - 주요 내용 : PFR(폴란드 개발펀드), BGK(국영은행), KUKE(보험), PAIH(무역투자청) 등 6개 국책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플랫폼
 - 서비스 : 금융 상품(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현지 파트너 검증, 입찰 정보 제공, 법률 컨설팅)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춤
- 유럽 플래그십 재건 펀드(European Flagship Fund) 창설
 - 참여 배경 : 본 펀드는 2025년 7월 로마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 2025)'에서 폴란드 BGK가 독일(KfW), 프랑스(AFD), 이탈리아(CDP) 등 유럽 주요 국책은행과 함께 공동 설립 의향서(LOI)에 서명하며 공식화됨
 - 설립 목적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목적과 공공 자금을 활용한 촉매적 투자(Catalytic Capital)를 기반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혼합 금융 구조로 설계됨
 - 전략 목표 : 폴란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자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돕고, 유럽 내 재건 금융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핵심 앵커 투자자로 참여함
 - 기금 규모 : 1단계로서 서명국 공동 출자 220백만 유로를 선투자(First-loss buffer)기반으로 총 500백만 유로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단계는 최대 10억 유로까지 확대할 목표를 가짐
 - 투자 방식 : 직접자본 및 Quasi-Equity 투자 방식,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방식, 두 구조를 혼합한 방식
 - 투자대상분야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분야, 인프라, 디지털 전환, 산업 현대화, Dual-use 생산, 핵심 원자재 산업
 - 일정 및 경과 : 2025년 URC에서 시장 의견수렴(Market Sounding) 실시, 현재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Due Diligence 단계 진행 중이며, 2026년 펀드 설립 및 초기 투자 개시를 목표 함
- 폴란드 개발은행(BGK), 우크라이나 내 특별 지위 확보('26.3.5)

- 우크라이나 의회가 폴란드 개발은행(BGK)의 우크라이나 내 지위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비준함
- 주요 내용 : BGK의 활동은 우크라이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국제 법적 지위를 갖게 됨. 이는 독일의 KfW나 프랑스의 AFD와 같은 글로벌 개발은행들과 유사한 수준의 특별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현지에서의 규제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주요 혜택

	구분	주요내용
1	자유로운 송금 보장	우크라이나 내의 지불 유예(Moratorium) 조치와 상관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국내외로 송금할 수 있음. 환전 및 교차 거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2	유연한 조달 절차	BGK가 지원하는 투자 프로젝트에는 우크라이나의 까다로운 공공조달법 대신, 더 빠르고 투명한 국제 표준(BGK 자체 절차)을 적용할 수 있음
3	금융 규제 예외	BGK의 금융 활동은 우크라이나 은행법이 아닌 폴란드 및 유럽의 은행 규제를 따름
4	담보 가치 인정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BGK의 보증을 국제기구 수준의 우량 담보로 인정하기로 함

○ 2026년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URC 개최(6.25~26)

다.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

□ 2025년은 폴란드가 중동부 유럽의 물류 및 에너지 허브로 거듭나는 전환점임

○ 교통·물류 및 항만 인프라

- 시비노우이시치에 (Świnoujście) 확장사업 ('25.11~'26.02)

- 사업비 : 약 100억 즈워티(2,350 백만 유로)
- EU 지원 : '25년 11월, 항로 확장 사업비로 44백만 유로(CEF 자금) 확보
- 영토 확장 : 약 2,000만 톤의 모래를 준설하여 바다 위에 186헥타르 (약 56만 평) 규모의 거대한 인공 반도를 건설
- 심수 컨테이너 터미널 : 연간 200만 TEU(20피트 컨테이너 20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터미널이 들어설 계획
- 초대형 선박 수용 : 수심을 17m로 깊게 만들고 70km 길이의 진입 항로를 정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400m급 컨테이너선 2척과 250m급 선박 1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게 계획
- 물류 및 에너지 연계로서 철도 및 도로망은 47헥타르 부지에 새로운

도로와 10개의 선로를 갖춘 철도 터미널을 구축하며 우크라이나 및 중앙유럽 내륙으로 물자를 빠르게 수송하기 위한 핵심 장치

- 그린 포트(Green Port)로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하역 기술과 선박용 육상 전원 공급 장치(AMP)를 갖춘 친환경 항구로 설계되어,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할 예정
- 향후일정으로 2026년 4분기 시공사 선정, 2027년 본격적인 건설 시작, 2029년 상업 운영 개시 목표
- 항구 확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폴란드가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기여를 함
 - ① 대안 수출입 경로 : 전쟁으로 흑해 항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비노우이시치에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철강 수출과 재건용 건설 자재 수입을 담당하는 최전방 물류 기지가 됨
 - ② 철도 네트워크 연계 : 기사에 명시된 대로 10개의 선로를 갖춘 철도 터미널이 항구 내에 구축. 이는 항구에 내린 재건 물자를 열차에 실어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직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
 - ③ 에너지 안보 허브 : 항구 인근의 LNG 터미널과 연계하여, 재건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병행

- 스와프코프(Sławków) 내륙 터미널 확장 사업

- 유럽 최대 물류 허브 :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이곳에 약 1조 5,500억원을 투입하여 물류 허브를 확장 중임
- 광궤 철도 연결 이곳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광궤'가 폴란드 내륙까지 연결된 유일한 지점으로 열차 바퀴를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우크라이나 화물이 바로 들어올 수 있어, 재건 물류의 심장부 역할을 함

- EU 지원 M-19 고속도로 교량 보수 사업 착수('26.3.3)

- 사업 개요 :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잇는 핵심 동맥인 M-19 고속도로 (도마노베-코벨-체르니우치-테레블레체 구간) 내 교량 및 진입로의 대규모 보수 공사사업
- 전략적 가치 : 해당 교량은 루마니아 국경(부쿠레슈티 방향)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핵심 병목 지점으로, 국경 간 이동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
- 폴-우 협력 모델 : 우크라이나 테르노필州와 폴란드 마조프세(Masovian)州 도로청간의 파트너십 협약 체결을 통해 공식 시작됨
- 재원 구조 : 90%는 EU 'Interreg NEXT Poland-Ukraine 2021-2027'

- 프로그램 기금이며, 10%는 우크라이나 지방 정부 예산으로 구성됨
- 추가 인프라: 루마니아 국경 검문소 설치를 위해 69만 유로의 별도 그랜트(Grant) 투입 예정

○ 에너지 허브 전략(26.1월)

- 에너지 하트(Energy Heart) : 2025.12 폴-우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동유럽 에너지 허브 선포
- 현황 : 시비노우이시치에 LNG 물량의 15%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공급 중이며, 향후 파이프라인 연계 강화 예정, 이를 통해 폴란드 LNG 터미널 물량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정례화하고, 전력 계통망(Interconnector) 확대 또한 추진

○ '야시온카(Jasionka) 허브'의 위상 강화

- 제슈프 근처의 야시온카 공항은 전 세계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의 90%를 처리하는 글로벌 물류의 심장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허브가 향후 재건 사업에서도 물류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인함

라. 군사협력

□ 군사 지원 규모 및 주요 통계

- 군사 지원 누적액 : '22년 러시아의 침공 시작 이후 총 42.7억 유로 (약 180억 즈워티) 돌파
- 주요장비 인도실적(2022~2024)
 - 기갑: 탱크 318대(T-72, 레오파르트 2A4 등), 장갑차 586대
 - 포병: 자주포(Krab, Goździk) 및 다연장 로켓(Grad) 등 137문
 - 항공: MiG-29 전투기 및 Mi-24 공격 헬기 등 총 20대
- 첨단 장비: 피오룬(Piorun) 지대공 미사일, WB Group의 드론(FlyEye, Warmate), 라크(Rak) 자주박격포 등
- 통신 지원: 폴란드 디지털부 예산으로 스타링크(Starlink) 단말기 29,000대 이상 구입 및 운용 비용 지원

□ 전략적 변화 : '원조'에서 '판매 및 기술 교환'으로 변화

- 핵심 전략 : '기술 공유형 안보'
- 방산 수출 확대
 - 기증 외에도 2022~2023년 사이 22억 유로 규모의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유상 판매(Krab 자주포 54문 계약 중 36문 인도 완료 등)
- 미그-29(MiG-29) 추가 인도 추진
 - 폴란드는 자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한국산 FA-50 등으로 교체하면서, 남은 MiG-29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인도하는 방안 검토 중
- 대칭적 기술 파트너십
 - MiG-29 인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실전에서 검증된 드론 및 안티 드론 기술을 폴란드와 공유하기로 함

□ 교육 및 인프라 허브 역할(JATEC 및 물류)

- 교육 거점
 - 폴란드 비드고슈치(Bydgoszcz)에 나토-우크라이나 합동 분석·교육 센터(JATEC) 개소(2025년 초). 우크라이나군의 NATO 표준화 및 실전 경험 공유의 핵심 거점
- 물류 허브
 - 제슈프-야시온카(Rzeszów-Jasionka) 공항이 전 세계 군사·인도적 지원 물자의 90%를 처리하는 글로벌 전략 요충지임을 재확인

□ 관련 기사

- 우크라이나 자주포 '보다나(Bohdana)' 폴란드 현지 생산 준비 완료 ('26.3.6)
 - 사업 주체 : 우-폴 합작 법인 'PK MIL SA'(폴, Ponar Wadowice 51%, 우크라이나, Kramatorsk Heavy Machine Tool Plant 49%, 합작).
 - 사업 내용 : 우크라이나 최초의 NATO 표준 155mm 자주포 '보다나'를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마무리 단계
 - 핵심 경쟁력 :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 내 생산 제품과 달리, 폴란드산 보다나는 제3국 수출이 가능해져 글로벌 시장(특히 NATO 동부 전선) 공략 가속화
 - 가격 및 성능 : 경쟁 기종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과 80만 발 이상의 실전 사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확보. 폴란드군의 노후화된

152mm Dana 자주포를 대체할 유력 후보로 부상

- 글로벌 위상 :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포병 전력의 약 40%를 담당 중이며, 독일과 협력하여 메르세데스-벤츠 새시 기반의 200대 공동 생산 계획도 병행 중
- 군사 협력 : 'MiG-29'와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의 교환
 - 단순한 원조를 넘어선 '대칭적 전략 파트너십 (Symmetrical Strategic Partnership)'의 사례
 - MiG-29 전투기 인도 : 폴란드는 자국 공군이 보유한 마지막 MiG-29 전투기들(약6~9대 예상)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25.12월 본격 논의)
 - 드론 방어 노하우 공유 : 미그기 인도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실전에서 검증된 드론 방어 기술과 노하우를 폴란드에 제공하기로 함. 이는 폴란드의 대(對)러시아 및 벨라루스 접경 지역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됨